

불안의 미메시스

-황정은 「누가」와 「낙하하다」에서 재현되는 두 겹의 불안

이은주*

-차 례-

1. 문제제기: 불안을 재현하는 방식
2. 감각으로 변주되는 두 겹의 불안
 - 2.1. 현실적 불안을 전경화하는 물리적, 감정적 사건
 - 2.2. 無감각으로 재현되는 존재론적 불안
 - 2.3. 현존재의 존재방식: 도피 혹은 견뎌냄
3. 결론: 불안의 재현과 실존

*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교수

[국문초록]

문학 영역에서 불안에 대한 연구는 현대사회 인간이 처한 환경, 상황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미적 반응으로 담론화되어 왔다. 근대화 시기 계몽 자체의 불안과 존재론적 간극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고찰한 것으로부터 최근 욕망 문제에 천착하여 인간의 불안의식에 집중한 논의까지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본원적인 불안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황정은의 소설 「누가」와 「낙하하다」는 현대인의 내면화된 불안의 정체를 두 겹으로 재현하고 있다. 「누가」에서 물리적, 감정적 사건을 통해 현실적 불안을 전경화한다면, 「낙하하다」에서 무(無)를 경험하는 인물을 통해 내던져진 존재로서의 존재론적 불안을 전경화함으로써 불안이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문학적, 미적으로 재현될 수 있는지를 실증한다. 본 논문은 인간의 본원적 불안이라는 형이상학적 논제들이 문학적인 구체성을 어떻게 확보하였는지를 밝혔다. 황정은 소설은, 중첩되어 있는 불안을 동시에 재현하는 방식으로 우리시대 인간이 견뎌내고 있는 불안의 속성을 재현했다는 의의를 보인다.

주제어 : 불안, 미메시스, 현실적 불안, 존재론적 불안, 세계-내-존재, 내던져진 존재, 현존재

1. 문제제기: 불안을 재현하는 방식

불안을 포함하여 우리시대의 위험을 경고하거나, 그 위험을 돌파할 연대와 공동체의 (불)가능성에 연루된 삶의 양태를 그려내는 데 황정은은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하면서 “현재 한국 소설의 한 정점에 근접해”¹⁾ 있는 작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가로 자리매김되고 있다²⁾. 세상 사람이 일상에서 경험했음직한 사소한 일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구조화하여 인간 삶의 본질, 비의에 충격적으로 도달하게 만드는 황정은의 탁월함은 그의 모든 작품에서 확인된다. 문체와 기법, 주제가 다양한 만큼 텍스트가 환기하는 의미 또한 강렬한데, 환상적 기법에 대한 관심³⁾부터 돌봄, 치유를 핵심어로 하여 공존과 연대를 향한 바람을 담은 논의⁴⁾까지 다른 삶과 세계를 꿈꾸는 그 마음을 되짚어보는 논의들은 그 자체로 불안한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보인다.

특히 황정은의 작품에서는 자본의 경쟁 논리로 내면을 채운 개인, 그로 인해 공허한 자들이 내적 불안을 승화시킬 방법을 찾지 못해 위태로

-
- 1) 이효석문학상 심사위원회, 「심사평」, 『이효석문학상 수상작품집 2014』, 문학의숲, 2015, 332면.
 - 2) 윤국희, 「황정은 소설에 나타난 ‘윤리적 폭력’ 비판」, 『한국근대문학연구』20(2), 한국근대문학회, 2019, 305면; 이미나, 「황정은 소설에 나타난 ‘공감’의 사유와 ‘공존’하는 연대의 가능성」, 『인문과학연구』42,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1면; 이은주, 「먼저 온 미래, 가족해체 그 이후」, 『현대문학이론연구』 86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21, 125면.
 - 3) 서영채, 「명량한 환상의 비애」, 『미메시스의 힘』, 문학동네, 2012; 신수정, 「2000년대 소설에 나타나는 유명 화자의 의미」, 『한국문예창작』18(2), 한국문예창작학회, 2015; 심진경, 「황정은 소설의 환상과 리얼」, 『한민족문화연구』49, 한민족문화학회, 2015; 이은주, 「환상소설의 두 경향」, 『비평문학』73, 한국비평문학회, 2019.
 - 4) 강지희, 「도시의 악몽을 빠져나오는 방법」, 『문학과사회』23(3), 문학과지성사, 2010; 김미현, 「21세기 한국소설에 나타난 감정 윤리의 동학- 궁정의 정치학을 중심으로」, 『우리말글』82, 우리말글학회, 2019; 박신영, 「고통에서 벗어나는 언어 행위: 황정은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6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7; 백지연, 「삶의 전환을 꿈꾸는 돌봄의 상상력」, 『창작과비평』49(2), 창비, 2021; 이미나, 「황정은 소설에 나타난 ‘공감’의 사유와 ‘공존’하는 연대의 가능성」, 『인문과학연구』42,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이소영, 「호모 파티엔스(Homo Patiens)의 서사와 인권」, 『현대문학이론연구』85, 현대문학이론학회, 2021.

은 인물들로 초점화되는 예가 많은데, 현대소설에서 재현되는 불안한 분위기, 인물은 일차적으로 근대사회의 경제, 정치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미적 반응으로 설명될 수 있다.⁵⁾

국가마다 상이한 근대화의 특성과 자각에 따른 다른 속성들로 계몽 자체의 불안과 존재론적 간극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고찰한 연구⁶⁾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근현대 불안을 설명하는 거시적 관점뿐만 아니라 미시적 접근 가능성도 열어보이기 때문이다. 서영채는, 근대화 시기 계몽의 원리가 작동하는 생활세계와 그 바깥의 공허감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형태의 불안에 접근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의 대표적 계몽문학인들이 어떻게 다른 길을 걷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문학인들이 계몽의 자기 한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가는 길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광수는 현실적 불안이 존재론적 불안을 압도했을 것이라는 분석은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상대적으로 “네이션이나 공동체가 당면한 현실문제로부터 한 발 떨어져” 있는 것이 가능했던 일본의 아리시마 다케오가 근대성이 초래한 존재론적 불안에 개인의 차원에서 맞서고 있다면, 지식이자 지식인의 위치에서 계몽적 민족담론의 언어로 글을 써야 했던 이광수의 현실적 불안은 한 개인의 존재론적 불안을 압도했을 것이라는 해석이⁷⁾ 특히 그러하다.

서영채의 논의에 등장하는, 이광수의 문학에서 감지되는 “내부가 없는 인간”과 같은 “기이한 증상”은 자기 안의 (존재론적) 불안을 외부로 투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으로 현실문제(근대국가 건설, 계몽, 생존)와 구성적 상동성을 보인다는 논법은⁸⁾, 시차를 넘어 21세기 불안한 한국사회에서 소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묻는 데도 유효하다. “삶의 거의 모든 영역 또는 생애과정 전체에서” 서바이벌, 경쟁 등의

5) 김동규, 『철학의 모비딕』, 문학동네, 2013, 184-215면.

6) 서영채, 「계몽의 불안: 루쉰과 이광수의 경우」, 『한국현대문학연구』51, 한국현대문학회, 2017.

7) 본 논문에서 ‘두 겹의 불안’을 착안하는 데 서영채의 이 해석이 큰 도움을 주었다. 서영채는 계몽기 이광수 작품의 특이성을 설명할 때 현실적 불안, 윤리적 불안, 존재론적 불안을 함축한 증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중 현실적 불안이 나머지 심적 상태를 압도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논의 전개방식이 황정은 소설을 분석하는 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8) 서영채, 위의 글, 129-137면.

형태로 생존이라는 현실문제가 모든 의미를 압도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⁹⁾ 생활세계와 그 외부 공간의 공포와 불안에 대해 소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계몽에 의해 존재의 안정성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발견된 주체의 불안과 동요가 괴담의 서사양식으로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한 논의¹⁰⁾도 흥미롭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해의 지평을 넘어서는 존재의 두려움을 괴담이라는 오락물로 구성하면서 시대적 불안은 대중이 정서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조정되고, 이를 통해 괴담은 인간의 불합리한 감각들, 진짜 두려움을 해소하고 덜어주는 기능을 했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작가 이상의 작품 공간을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키는 공간으로 해석하고, 불안의 원인을 이십 세기 근대 소비도시를 추구하면서도 십구 세기적 가치와 도덕에 갇혀있다는 자의식, 거기에서 오는 갈등과 모순에 대한 인식이라고 지목하는 것도¹¹⁾ 시대적 불안에 대응하는 내부 반응에 초점을 맞춘 작업으로 의미화할 수 있다.

문학 영역에서 불안에 대한 연구는 현대사회 인간이 처한 환경, 상황의 구조적 문제를 공통 배경으로 하는데¹²⁾, 실제적 궁핍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존하는 궁핍감, 박탈감에 대한 논의¹³⁾, 선망하는 대상과의 비교에서 오는 수많은 불평등에 대한 정서, 불쾌한 기분에 둘러싸인 불안한 인물들에 대한 성찰¹⁴⁾ 등이 현대인의 내면화된 불안과의 상관성 속에 놓인다¹⁵⁾. 근대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지위 불안에 초점을 맞춘 논의¹⁶⁾도 시의성을 갖는다. 고된 노동, 저소득, 불안

- 9)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49집 1호, 한국사회학회, 2015, 193-194면.
- 10) 김지영, 「계몽의 불안과 공포의 영토화」, 『어문논집』87, 민족어문학회, 2019.
- 11) 김효순, 「이상 문학의 불안과 마키노 신이치 문학의 방법」, 『일본근대학연구』36, 한국일본근대학회, 2012.
- 12) 신승희, 「현대사회의 불안을 보는 한 문학적 시선」, 『한국문예비평연구』49,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 13) 황영경, 「김숨 소설 속의 주거 공간, 불안의 극대화 설정구조 양상」, 『인문사회』21』 10권 5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9.
- 14) 이양숙, 「도시공간의 게토화와 불안의 정동」, 『국어국문학』195, 국어국문학회, 2021.
- 15) 김길용, 「불안과 근대: 낭만주의 시대의 유토피아로서 미적인 것」, 『독어독문학』58(2), 한국독어독문학회, 2017, 64면.

정한 고용, 비교문화가 지위 불안을 초래하고 한국 젊은이들은 그러한 한국사회에서의 탈출, 해방을 기대하며 이민을 선택한다는, 매우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사회의 불안이 인간의 존엄, 의미 있는 삶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논자와 분석대상 모두 다양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구조화된 시공간에서의 현실적인 불안을 재확인한다는 공통점을 보이며, 거기에서 마무리된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황정은의 소설은 현실적 불안을 전경화하면서도 존재론적 불안에 대한 사유로 무게 중심을 옮기며(「낙하하다」는 그 반대) 불안의 중첩성을 동시에 재현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지금까지 문학적, 미적으로 담론화되어 온 현실적 불안에 대한 감각을 유지한 채 그 불안이 존재론적인 것과 같은 무게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존재론적 불안은, 현실적 불안을 해결하면 동시에 해결되는 것, 혹은 현실적 불안이 사라지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가 회피하거나 도망쳐온 감정 상태, 현상이라 하겠다.

황정은의 「누가」(2013)와 「낙하하다」(2011)는 연작소설이 아님에도 짝을 이룰 때¹⁷⁾ 상호 반영적으로 그 의미가 구체화되면서 현대인의 내면화된 불안과 그 속성을 정면으로 응시하게 만든다. 불안의 상태를 사실적 감각으로 재현하는 동시에 그 너머를 의식하게 만드는 「누가」의 이야기는, “세계의 중심 없음과 끝없음, 무한공간의 공포와 불안”¹⁸⁾

16) 이행선, 「장강명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2015)에 나타난 한국사회 내 불안의 속성과 이민의 의미」, 『인문사회과학 연구』31권 1호, 세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3.

17) 제 15회 이효석문학상 수상작품집에 수상작 「누가」와 함께 수상작가 자선작으로 「낙하하다」가 나란히 실렸다(황정은 외, 『이효석문학상 수상작품집 2014』, 문학의숲, 2014). 본 논문에서는 두 작품의 발표 순서와 상관없이 텍스트가 짝을 이루었을 때 각각의 텍스트가 완결하고 있는 양면이 서로를 미러링할 수 있도록 도와 그 의미가 생물화된다는 것을 보이고자 했다. 인간 외부에서 내부로 향해가는 서사 분석의 흐름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 텍스트 분석은 발표 순서와 다르게 「누가」를 앞에 둔다. 이와 달리 발표 순서대로 “두 작품을 겹쳐 읽으면서” 텍스트들 사이에서 인식론적 변화를 읽어낸 논의도 있다(전기화, 「황정은 다시」, 『창작과비평』46(3), 창비, 2018, 329-330면.). 이 시각에서는 「낙하하다」가 이 세계에 발붙이고 싶어하는 화자를 등장시켰다면 「누가」의 화자는 세상 끝으로 더는 물리지 않겠다는 태도(체념의 의지)로 응답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18) 서영채, 앞의 글, 114면.

으로 추상화되었던 존재론적 불안을 무감각 상태로 전경화한「낙하하다」와 짝을 이루면, 현실적 불안과 존재론적 불안이라는 두 겹의 불안은 텍스트 각각의 안과 밖은 물론이고 서로의 겹을 확인시켜주는 거울 모양의 이야기로 거듭난다.

기술시대에서 존재자는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갖지 못하고 인간의 처분에 맡겨진 에너지 자원,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존재가 존재자에게서 빠져 달아나버렸다”¹⁹⁾고 말한다. 이어서 그러한 환경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이 어떠한 계기에 의해 본래적 존재를 맞닥뜨리는 순간, 즉 세계-내-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에 직면하게 될 때 불안이라는 근본심정성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²⁰⁾. 본 논문에서는, 현대적 삶의 조건이 견인하는 현실적 불안과 그 너머의 인간 존재론적 불안이²¹⁾ 「누가」(2013)와 「낙하하다」(2011) 각각에서 감각과 무감각을 변주하는 방식으로 두 겹의 불안을 동시에 재현하며 서로를 비추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는 21세기 현 지점에서 소설이 인간의 불안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한 방식이기도 하다.

2. 감각으로 변주되는 두 겹의 불안

2.1. 현실적 불안을 전경화하는 물리적, 감정적 사건

불안의 문제를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할 때 근대의 불안은 그 이전 세

19) 박찬국,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21세기북스, 2017, 65-70면.

20) 박찬국,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독』, 그린비, 2014, 246-253면.

21) 이 글에서 불안은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에 바탕을 둔다.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에 대해서는 박찬국의 논저(『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독』)에 기반하여, 다음 자료를 참고했다. 권순홍, 「불안의 실존론적 구성과 비본래성의 가능성」, 『철학논총』78집, 새한철학회 논문집, 2014; 권순홍, 「현존재의 실존과 불안의 두 얼굴」, 『현대유럽철학연구』51집, 한국하이데거학회, 2018; 김길웅, 「존재와 불안」, 『독일어문화권연구』27, 서울대 독일어문화권연구소, 2018; 김길웅, 「불안, 시간 그리고 존재」, 『독일언어문학』86집,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19; 박일태, 「불안의 형이상학적 의미」, 『철학연구』130집, 철학연구회, 2020; 조홍준, 「시간은 어떻게 공간이 되는가?」, 『동서철학연구』105호, 한국동서철학회논문집, 2022.

계구상에서 버팀목 역할을 했던 토대, 즉 정신적 안정의 구심점으로서의 공동체의 질서나 가치들이 취약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본다²²⁾. 구심점의 사라짐, 즉 총체성의 붕괴로부터 예측 불가능성, 사회구조의 불안정성, 사회적 유대감의 파괴 등이 21세기 사회의 문제적 지점으로 논의되는²³⁾ 가운데 현대적 삶의 양식에서 경험하는, 근대 초기에 인간 해방을 칭송하던 의미와 다른 것이 되어 버린 개인(주의)화²⁴⁾가 우리시대 인간 내면을 잠식하는 불안의 본질로 진단되고 있다. 현대적 인간 상황, 생활방식에서 감지되는 불평등, 사회문제가 개인적 부적응, 죄책감, 불안, 갈등, 노이로제와 같은 식으로 개인의 위기로 나타난다는 뜻이다²⁵⁾.

「누가」에서는 등장인물 ‘그녀’가 방 바닥을 닦고 있는 장면으로 그 위기가 전면화된다. ‘그녀’의 행위가 심상치 않음은 ‘일곱 시간째’ 그걸 하고 있다는 데서 드러난다. 일주일 전에 이사한 집의 도배 풀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바닥을 닦고 있는 것인데, 끈적끈적하고 시큼한 냄새가 그녀를 불쾌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그녀는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바닥을 닦고 있을까.

그녀가 이사하기 전으로 돌아가보자. 그 동네 환경은 모든 것이 과도했다. 집 앞 가게의 주인은 과도하게 친절하고 친밀하게 굴었으며, 과도하게 의욕적이어서 동네 손님들을 “형님, 누님”으로 불렀다. 새로 생긴 휴대폰 매장에서는 풍선 간판과 LED조명등 앞으로 시끄러운 음악을 하루종일 틀었다. 온갖 소음과 진동, 취향이 그녀의 공간을 점령했

22) 김길웅, 「문학적 인간학의 관점에서 본 ‘감정」, 『괴테연구』29, 한국괴테학회, 2016, 194-195면.

23) 김길웅, 위의 글, 198면.

24) 개인화는 주어진 것으로서의 인간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를 하나의 과제로 삼아 그 과제를 수행할 책임과 결과에 대한 책임 (부작용을 포함해) 행위자에게 지우는 것이다. 인간은 더 이상 그들의 정체성을 원래 품고 태어나지 못한다... 개인의 자기만족과 자기 충족성은 또 다른 환상일 수도 있다... 개인들이 자신들이 겪는 좌절과 고난을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릴 수 없게 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위험과 모순은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그것들을 해결할 의무와 필요는 계속 개인 차원의 문제가 되어간다.

Zygmunt Bauman, 『액체 현대』, 이일수 역, 필로소픽, 2022, 88-93면.

25) Ulrich Beck, 『위험사회』, 홍성태 역, 새물결, 2006, 171면.

고, 급기야 그녀의 몸을 점령하여 이유 없이 아픈 사람이 된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 상황과 맞닥뜨리면서 그녀가 선택한 것이 이사였다. 그리고 “조용할 것”, 이것이 이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타인의 취향으로부터 차단될 방법을 찾아 떠나왔지만, 이사 온 집에는 또다른 소리가 침범한다. 근원지를 알 수 없는 층간소음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소리를 윗집 여자는 이렇게 전한다.

이 집에서 어제 누가 싸우지 않았어요? 어제요? 누가요? 누가 막 싸우고 울면서 우리 애기 불쌍해서 어쩌나 그러지 않았어요? 어제요? 몰라요. 이 집에 애기 없는데. 남자는요 남자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막 울고? 저 어제 집에 없었어요.²⁶⁾

윗집 여자의 이야기가 신뢰할만한 것이라면, 공동주택 어딘가에서 부부싸움을 했고, 그집 애기가 울면서 발생한 소음이 멀리까지 번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윗집 여자는 우선적으로 아랫집(이사온 그녀의 집)이 소음의 발생지라 의심하여 확인 차 아랫집에 사는 그녀를 방문하고 조심해달라는 경고를 질문 형식으로 던지고 있다. 그런데 윗집 여자의 말이 길어지면서 그녀의 말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고, 텍스트의 갈등은 물리적인 층간소음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의혹이 생긴다.

내가 저기 윗집 사는데 어제 우리 윗집에서 지랄을 하는 거야. 시끄럽다고. 우리집이 그랬대. 소리지르고 울고 애기 불쌍하다고. 우리집에 우리 딸하고 나야고 둘이 사는데 내가 장사를 하느라고 낮엔 집에 없고 딸이 집에 있거든. 딸이 서른다섯인데 공부하고 직장 다니다가 집에 있어요. 우리가 개를 세 마리 키우는데 개들이 짖지는 않아. 그런데 어제하고 그제는 개새끼들이 지랄병이 나가지고...

네?

윗집에서 시끄럽다고 우리집이.

윗집에서 아주머니한테요?

26) 황정은, 「누가」, 『아무도 아닌』, 문학동네, 2016, 116면. 이후 인용 부분은 인용 문단 끝에 면수만 표시함.

아니 내가.

네?

아니 내가 딸하고 둘이 사니까 어미가 딸을 데리고 나왔네 뭐네 말도 많고 짚고 까불어들. 그래서 그렇게 따졌거든.

저 무슨 애긴지.....

못 알아들겠는데요.(117면)

이쯤 되면 이 공동주택에서 소음이 진짜 발생했는지도 의아하고, 윗집 여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주인공 ‘그녀’도 윗집 여자를 “좀 이상하고 미친 것 같”다고 판단한다. 그래도 이사 온 곳은 먼저 살던 곳보다 조용해서 좋다고 되된다. 그러나 곧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진동, 뭔가를 굵는 냄새, 연기, 떠드는 소리, 웃음소리로 소란스러워 그녀는 윗집으로 올라간다.

얼마 전 그녀를 방문했던 윗집 여자는 서른 다섯된 딸 하나와 살고 있다고 했는데, 윗집에서는 이십 대 초반의 여자애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으며, 조용히 해달라는 그녀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윗집 여자애들은 그녀의 집 현관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일까지 벌인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반복되면서 그녀는 집안의 물건을 천장으로 던지기 시작한다. 층간소음에 대한 일종의 보복행위를 감행한 것인데, 그날 새벽 그녀는 집을 방문한 누군가로부터 “아래층이야 씨발 년아.”라는 말을 듣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된다.

“아래층이야 씨발 년아.”라는 마지막 문장을 통해 등장인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아랫집, 윗집이며 불안과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녀’의 다음과 같은 독백은 아래층 남자의 독백이기도 하고, 위층 여자의 독백이기도 한 것이다.

윗집 여자는 좀 이상했지. 미친 것 같았다.....미친년이 별 것도 아닌 용건으로 문을 두드리고 아 사람 바쁜데..... 아 싫다. 아 피곤하다. 만나기 싫고 마주치기도 싫다. 요즘은 어디나 이상한 사람들 천지다. 미친년에 아 미친놈, 천지다.(119면)

텍스트의 불안은 여기에서 증폭된다. 이사하기 전 ‘그녀’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LED조명, 시끄러운 광고음악 등 출처가 명확한, ‘그녀’ 외부에 있는 것들이었다. 그것은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도피한(이사한) 공간에서 문제가 되는 소음과 냄새는 출처가 모호하다. 게다가 소음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반응이 누적될수록 그 소리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고, 나아가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데서 형성되는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기운은 텍스트가 전면화했던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의 온갖 현실적 감각들을 넘어서 텍스트 전체를 휘감는 불편한 정서가 된다. 이 불편한 정황이 감지되면 감각으로 전면화되었던 사건들 너머의 그로테스크한 침묵의 순간들이 개인화된 불안의 심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소음을 듣는 인물들이 소리로부터 시작되는 괴로움을 쏟아내는 장면에서 다시 집중해보자.

아니 내가 딸하고 둘이 사니까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나왔네 뭐네..... (중간생략)인간들이 뭐가 어찌고저찌고 말도 많고 까불지들. 그래서 내가 지금 찾으러 다니는 거야 범인을. 어느 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육을 먹었는지 잡고 말 테다.....어느 염병할 집에서 우리를 모함하고 모욕을 주고 괴롭히는지, 내가 이번엔 넘어가지 않을 테다 두고봐..... (117-118면).

인물들이 마주보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지만 철저하게 독백인 말, 서로가 서로에게 아래층 사람이고 윗집 사람이 되는 인물들의 입을 통해 제시되는 불안 요소들은 특정 인물에 한정하여 맥락화할 수 있는 사건의 의미를 넘어서서, 내용과 상관없이, 그 내용을 감당해 왔을 개인의 시간, 감당할 수 없어 위기에 처한 개인들의 내면을 상상하게 만든다.

즉, “일곱 시간째 바닥을 닦고 있는” 강박적 인물은 무슨 생각을 하며 바닥을 닦고 있는가, “딸하고 둘이 사니까”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나왔네 뭐네 말이 생기는 문화 안에서 “어느 염병할 집에서 우리를 모함하고 모욕을 주고 괴롭힌”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어떤 심정으로 그 순간들을 견디어 왔는가, “가장자리가 우그러

진 양은 밥상에 밥과 보리차와 김치 한 가지를 두고 먹고” 사는 노인의 식사 시간은 오히려 가장 무감각하고 허기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금융권의 도급 전화 상담원에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말로 일자리를 잃은 선배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아무런 감흥 없이, 실은 얼마간 불쾌한 기분”으로 앉아 있었다고 하는 그녀의 내면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었을까.

텍스트에서 전경화되는 사건은 무직, 계약직, 일인 가구, 소수 가족 형태로 구체화된 인물을 내세워, 일곱 시간제 바닥을 닦는 이상행동을 하거나 상호 간에 “미친년, 미친놈”으로 호명되고 “짱고 까불고, 염병” 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인물들은 서로가 서로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의 모습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텍스트는 그것을 “사람들이 망해가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인물들은 망해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그것으로부터의 해방, 차단될 수 있는 권리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도 감지하고 있다.

그녀는 그때 자신이 계급적 인간이라는 것을, 자신이 속한 계급이라는 걸 알았다. 이런 거였구나. 이웃의 취향으로부터 차단될 방법이 없다는 거, 계급이란 이런 거였고 나는 이런 계급이었어....돈으로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지. 나는 지금 그게 아니고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게 아니다. 나는 그래 그거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계급....(123-124면)

경제적 성취와 관련하여 지위(status)가 부여되기 시작한 이래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속물근성이 편재한 사회에서 낮은 지위에 처한 사람은 점차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다²⁷⁾. 속물적인 세상이 중요한 상징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무시와 외면 때문인데, 알랭 드 보통은 이 시대 가난이 ‘물질적 형벌’이라면 그 영향이 ‘감정적 형벌’²⁸⁾ 이라고 설명한다. 「누가」에서 소음과 냄새는 그 형벌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가 낳은 경제적 진

27) Alain de Botton, 『불안』, 정영목 역, 이레, 2005, 85면.

28) Alain de Botton, 위의 책, 38면.

보, 현대적 생활방식으로서의 질서 구축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의 감정적 동요가 등장인물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위협적인 말로 현실적 불안감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텍스트 전체를 지배하는 불쾌한 정서는,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어떤 지위, 즉 계급에 속해 있으며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다는 데로 옮겨간다. 그것은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미끌거리고 끈적거리므로 계속 그녀를 불쾌하게 만드는 도배 풀처럼 그녀에게 들러붙어 있는 것이다. 이 현실적 불안은, 가게 스피커 소리처럼 명확하게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소음으로 재현되다가 점차 출처가 의심되는 벨소리, 문소리, 웃음소리, 말소리, 냄새, 진동, 이명을 감지하는 개인적 망상과 환각으로 옮겨오며, 각자 혼자 견디어 온 침묵의 시간, 감각할 수 없는 낮설고 공포스러운 공간을 응시하게 만든다.

현대사회는 지위에 기반한 계급 해체, 이탈로부터의 해방을 전망했었다. 그러나 해방된 사람들은 개인을 통제하는 구조²⁹⁾ 속에서 자신이 겪는 고난과 좌절, 그로부터 생겨나는 불안을 사회적 위협과 모순으로 재구조화하지 못하고 층간소음, 즉 위험한 이웃과 그것을 자각하는 개인의 위기로 떠안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다시 제기된다. ‘그녀’는 자기의 불편한 심정이 층간소음 때문이라고 믿고 있을까. 그녀는 이사를 결심하고 단지 ‘조용할 것’만을 바란다고 했는데, 그 ‘단지 조용함’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예컨대 잡상인, 이런저런 방문객, 확성기 소음, 휴대폰 매장의 무자비한 플래이리스트, 사람들이 망해가는 모습,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 해방이라기보다는 차단될 수 있는 권리.....그걸 확실하게 실현하려면 돈을 가지고 있어..... 야 비로소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계급인 거야. 그런데 나는 그게 아

29) 현대사회의 개인이 생활 상황들의 모든 설계에서 제도적 종속성에 놓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해방된 개인들은 노동시장에 의존하게 되며, 그 때문에 교육, 소비, 복지국가의 법령과 생활보조, 교통계획, 소비자 공급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의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상담과 보호의 가능성과 방식에 의존하게 된다. 모든 개인들을 제도-의존적으로 통제하는 구조를 개인주의화로 고찰하면서 울리히 벡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한다. Ulrich Beck, 앞의 책, 215면.

니지. 나는 지금 그게 아니고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게 아니다. 나는 그래 그거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계급.... (124면)

‘그녀’는 죽을 때까지 그 조용함을 누릴 수 없을 것임을 눈치채고도 이사를 한다.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조건, 그로부터 발생하는 불안과 그 불안을 통제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일이지만 참고 있고 참아 왔다”는 그녀가 이사를 하며 기대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이사를 한 후에도 그 참을 수 없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는 현재, 그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 노인보다 낮지만 지금의 나하고 그 노인 사이엔 거의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언제고 나는 그 노인이 있었던 곳에 스무스하게 당도할 것이다....나는 미래에 아주 매끄럽게 그 노인처럼....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예감이고 그런 예지다. (134면)

이사 후, 소음 출처의 불확실성으로 구체화된 사건들 끝에서 그녀는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해결 “방법이 없는” 일이라는 것만 재확인한다. 외부 소음으로부터 탈출(이사)하여 출처 불명의 소음으로 옮겨온 그녀의 ‘무섭고 불쾌’한 심정은 이제 그녀 내부와 직면해야 한다. 마주해야 하는 ‘무섭고 불쾌한’ 그 순간은, 외부소음, 층간소음, 음식냄새, 끈적이는 풀, 노인의 삶의 흔적 등 온갖 감각으로 전면화되었던 사건 뒤를 떠받치고 있던 섬뜩하고 낯설며 아득하고 공허한 침묵의 시공간이다.

2.2. 無감각으로 재현되는 존재론적 불안

현대사회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의 행동 유형과 구성 방식은 자명하지도, 주어지지도 않으며 개인화되고 사적으로 변하였다. 그에 따른 부담과 실패의 책임이 개인에게로 떨어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³⁰⁾. 「누

30) Zygmunt Bauman, 『액체 현대』, 이일수 역, 필로소픽, 2022 45-46면.

가」의 그녀가 인식하고 있는 계급적 종속, 한계는 이제 체제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실패와 책임으로 미시화된다. 이러한 시대의 인간 조건에서 비롯되는, 「누가」에서 후경화 방식으로 재현되었던 낮설고 섬뜩한 정서의 심연은 「낙하하다」에서 ‘계속 낙하 중인 인간’의 심상으로 재현되고 있다. 「누가」의 마지막 장면은 정체 모를 소음으로 불안해 하던 그녀가 자신이 소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래층이야 씨발 년아.”라는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 「낙하하다」는 「누가」의 바로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어질 수 있는 ‘그녀’의 내적 상태이자 「누가」 전체를 감싸고 있으면서도 사건으로 전경화할 수 없었던, 각 인물들이 견디어 온 심연의 시간을 재현하고 있다.

「누가」의 ‘그녀’는 자신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냄새의 피해자로만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 소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계급 문제로 치환한다. 즉 ‘그녀’는 이웃을 “백 퍼센트의 고객으로는 평생 살아보지도 못한” 채 “웃는 얼굴로 사람을 모욕하고 병신 만드는 미친년들”로 여긴다.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시달리면서도 계급의 문제도 인지하지 못하는 “니들 같은 인간들”, “니들 같은 이웃”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래층이야 씨발 년아.”라는 이 한 마디는 그녀가 내뱉은 ‘니들 같은 인간’이라는 불쾌한 범주 속으로 그녀를 밀어 넣는다.

나와 니들(이웃)을 구분하고, 참는 자와 무례한 자로 구분하며, 문제의 본질을 직시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했었던 ‘그녀’ 자신도 후자에 속한다는 것을 회피하지 않을 때, 익숙하게 구분지었던 자신의 일상적 세계, 틀이 무너지며 세계 전체가 낮설게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 이때 그녀는 자신의 본래적인 존재에 직면함으로써 마음의 불편함(ungeheuer)을 느끼게 되는데, 하이데거는 이 상태를 불안으로 설명한다.³¹⁾ 「낙하하다」의 이야기는 섬뜩하고 낮선 세계에 단독자로 직면한 존재의 불안에 대한 부연설명이자 “내던져진(being thrown, 被投) 세계-내-존재 자체”³²⁾이다.

31)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와 관계 맺는 방식을 마음씀(sorge)으로 해석하고, 현존재가 탁월하게 자신에게 개시되는 현상적 기반으로 불안을 들고 있다. 박찬국,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독』, 그린비, 2014, 243; 246-253면.

떨어지고 있다.

삼년은 지났을 것이다. 검은 공간을 하염없이 떨어져내릴 뿐이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다. 삼년은 지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고 생각해두었다. 삼십년은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득하다. 삼일 정도 지났을 거라고 생각해도 아득하다. 삼년은 지났을 것이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그렇게 생각하기로 생각해두었다. 삼년째 떨어지고 있다.

어째서 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삼년 전, 떨어지고 있네, 라고 생각하며 떨어지고 있는 자신을 깨달은 뒤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³²⁾

황정은의 소설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낙하하다」의 탁월성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이야기가 재현해 내는 전체의 상(像)이 결합하여 메시지가 완성된다는 데 있다. 등장인물 ‘나’는 삼 년 전에 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 소설의 전경화된 이야기이다. “떠오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어쩌면 상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며, “다리를 껴안고 머리를 숙이면 머리와 어깨가 구르며”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끝도 없는, 아무런 물질에도 닿지 못하는 무중력의 우주공간을 떠다니는 것일 수도 있다.

「누가」에서 ‘그녀’가 사람이 싫어졌다고 이야기하며 이사를 결정한 이유는 그녀의 삶이 경계 없이 다른 존재자들로부터 침범 당하는 일상 속에 놓여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녀는 일상세계에 변화를 주는 것, 즉 이사를 통해 타자들로부터의 해방, 권리실현, 가능성(변화) 등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이사 후에 그녀가 마주하는 무섭고 불편한 심정은 구체적으로 실재하는 대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불편한 것들에 대한 책임과 실패를 스스로에게 돌리는 심경은, 노인이 살던 집으로 이사를 간 후 그녀가 “나는 정당하게 세를

32) 박찬국, 위의 책, 248면.

33) 황정은, 「낙하하다」, 『파씨의 입문』, 창비, 2012, 61-62면. 이후 본문 인용은 면수만 표시함.

내고 이 집으로 들어왔을 뿐인데 노인을 내쫓았다는 기분”을 느끼는 데서, 모든 갈등 속에서 되뇌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일이 많아졌을까.....뭔가 요령 같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순간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녀의 이 불안은 「낙하하다」를 통해 그 정체를 드러낸다.

아주머니도 쓸쓸했을까.

평소엔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 쓸쓸하게 살고 있었을까.....그러므로 지금쯤 어디선가 떨어져내리고 있지는 않을까. 아주머니만의 지옥에서,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로, 혼자서 떨어지고 있지는 않을까.

다름아니라 나였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아주머니였을지도 모르겠다.

.....중략.....

낮에는 서랍 냄새가 뱀 옷을 입고 외출했다가 저녁엔 누구도 친절하게 대해 주는 사람 없는 집으로 돌아가고는 하지 않았을까.....

이것뿐이다.

스스로의 목소리뿐이다.

어디에도 부딪히지 못하고 메아리로 돌아오지도 않는 독백뿐이다. 혼자서 말하고 있다. (74-77면)

더는 꿈꾸지 않고, 꿈꾸는 데 익숙하지도 않게 보이는 완고한 얼굴의 아주머니를 만나 지하철의 출구 방향을 가르쳐주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던 ‘나’의 기억은, 아주머니만의 독백, 아주머니만의 침묵의 시공간(지옥)으로 치닫고 그것이 결국 ‘나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온다. 꿈꿀 수 없고, 소통할 수 없으며, 친밀감과 연대도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은 개인의 지옥으로 환원되고, 지옥에 있는 개인은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탓을 하지도 못하는 상태를 지속할 뿐이다. “혼자서 말하고 있는” 이 침묵의 상태를 견디는, 각자의 지옥에서 떨어지고 있는 개인들의 텍스트(「낙하하다」)에서는 지하철역에서 한 번 만난 아주머니와 세 계절을 빠짐없이 만난 사람이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다.

야노 씨와는 봄부터 가을까지 만났다. 봄부터 가을까지 빠짐없이 만났다. 어느날 가치관이 맞지 않네요, 라는 말을 듣고 헤어졌다. 어떤 면에서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도 듣지 못했다.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가요, 묻고 싶은 것도 묻지 못하고 헤어졌다..... 어떤 면에서 가치관이 맞지 않았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다.(71면)

「누가」에서 일상세계에 사로잡힌 개인의 불안이 원인과 대상이 있는 것처럼 사건으로 전경화되면서, 중첩되는 공허함은 불쾌한 것으로 남겨두었다. 「낙하하다」는 바로 그 불쾌함, “친숙하고 편안한 일상 세계의 보호막을 찢고 등장하는 존재론적 동요”³⁴⁾의 순간을 경험적 시공간을 무화시키는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다. 텅빈 공간, 진공상태, 무감각을 전면화하면서 그것을 견어냈을 때 보이는 약간의 친절함, 소박한 만족의 순간들이 곁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은 추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 존재양식을 가지지 않는다. 구체적 시공간은 세계-내, 현존재의 세계에 근거해서만 발견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낙하하다」의 ‘나’를 통해 볼 수 있는 세계에서는 ‘아주머니와 야노 씨’도 구분되지 않고, ‘복숭아와 사과’도 중요하지 않으며, ‘빗소리와 빗방울’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 세계에는 “우주처럼 무한한 공간을 끝도 없이” 해매고 있을 뿐이라는 목소리만 존재한다.

떨어지고 떨어지길 거듭하다보니 직선이라기보다는 곡선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떨어진다고 해도 상당히 큰 구심력에 휘둘려 결국은 둥근 원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떨어지고 떨어지며 떨어지기 직전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열심히 생각해보았지만 아무래도 생각나지 않는다. 운 나쁘게 워홀이라거나 무슨 차원의 터널에 빨려들어 전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중인지도 모르겠다.(62면)

존재하는 각각의 존재자들은 자기 자리를 가진다. 그러한 자리가 다

34) 김동규, 『철학의 모비딕』, 문학동네, 2013, 47면.

하이데거는 전자를 비본래적 불안으로, 후자를 본래적, 존재론적 불안으로 구분하고 있다.

른 존재자의 자리도 배치하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그것이 현존재의 주위 세계를 구성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그 공간성이 가능한 것은 현존재의 근원적 시간성 때문이다³⁵⁾. 현존재가 지금(시간)을 그 자리에서 연속(지속)하기 때문에 시공간은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낙하하다」의 ‘나’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리와 방향을 정할 수 없다. 그 때문에 떨어지는 것인지 상승하는 것인지, 직선으로 나아가는지 둥근 원을 돌고 있는지도 모호하다. 통속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의 흐름을 깨뜨리는 텍스트의 상황에서는 유한성, 한계, 시작과 끝이라는 맥락을 통해 의미를 획득하는 죽음(삶), 지옥(천국), 이별(만남, 사랑) 등이 모두 무화(無化)된다.

이것은 결국 꿈일지도 모르겠다.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게 이어지는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중간 생략).....죽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가 이따금 있다. 죽었을지도 모른다.....(중간 생략)..... 장래희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잘 죽고 싶다고 대답한 적도 있다.....여름엔 복숭아를 듬뿍 먹고 가을엔 사과를 양껏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만족하며 살다가 양지바른 곳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그 정도가 지복이라면 요즘의 인생이란 서글픈 것이로구나, 지나가듯 생각했다.....(중간 생략).....줄곧 떨어지다가 어디든 닿기 전에 결국 희미해질지도 모를 일이다. 공허한 마찰을 거듭하다가 나달나달해져 이윽고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다.(62-65면)

아무도 아무것도 없으니 세계랄 것도 아닌 세계를 아무에게도 아무 곳에도 닿지 못하고 떨어져내린다.....어느 것이든 밑도 없는 시작으로 끝도 없다.(70-71면)

“아무에게도 아무 곳에도 닿지 못하고” 떨어져 내리고 있기만 한 ‘나’에게서는 시간, 공간, 타자가 모두 사라진다. 삶의 구체성과 의미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 상태의 지속 혹은 반복 속에서 ‘나’는 “외롭고 두렵고 무엇보다도 지루하다”고 말할 뿐이다. 하이데거는 ‘나’와 같은

35) 조홍준, 「시간은 어떻게 공간이 되는가?」, 『동서철학연구』, 105호, 한국동서철학회논문집, 2022, 481-487면.

상태로 내던져지는 것(被投性)이 인간 존재의 운명이라고 말하며, 현존재가 자신의 본래적인 존재에 직면할 때 불안의 심정, 기분에 놓이게 된다고 분석한다. 떨어지는 ‘나’가 할 수 있는 것은 ‘공허한 마찰’에 그칠 수 있는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뿐이다. 인간 존재는 자기 자신이 불안의 근원지인 셈이다³⁶⁾. 「낙하하다」는 바로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 세계-내-존재로 내던져진 존재론적 불안 자체를 계속 떨어지고 있는 한 인간의 독백으로 재현한다. 「누가」에서 가시화되지 못한 불쾌하고 무시무시한 정서의 정체를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는 것이다.

2.3. 현존재의 존재방식: 도피 혹은 견뎌냄

「낙하하다」가 재현하고 있듯이 인간은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이다. 그 본래적 심정이 불안이라고 했을 때 세계-내-존재로 살아가면서 불안에 직면한다는 것은 하이데거가 주장하듯이 근원적인 존재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이 된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때의 불안은 우리를 허무감과 무상감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인(das Man)들의 세계에서 해방시켜 우리를 단독자화하면서 본래적인 실존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³⁷⁾. 현존재가 살아가는 세인들의 세계는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기 어렵고 익명의 타인들에게 예속되어 휘둘리는 환경이 된다.³⁸⁾ 그런데 불안에 직면한 현존재는 존재를 응시하며 세계를 둘러보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세계의 세계성이 이해되고 존재자들이 우리에게 와 닿을 수(angehen)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 불안의 계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되는 이유는 피투(被投)로서의 존재 이해가 선회되었을 때 현존재가 세계-내-존재로 자신을 기투(企投)하는 존재양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³⁹⁾.

이 불안을 감지하고도 그 기분, 심정에 직면하지 않는 것을 두고 하

36) 박찬국, 앞의 책, 246-247쪽; 김동규, 앞의 책, 46면.

37) 박찬국, 앞의 책, 241-251쪽; 권순홍, 「현존재의 실존과 불안의 두 얼굴」, 『철학논총』76집 2권, 새한철학회 논문집, 2014, 189면.

38) 박찬국, 앞의 책, 179면.

39) 박찬국, 앞의 책, 190-191; 204-205면.

이데거는 존재적 불안의 상태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은폐의 방식은,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들이 자신의 소망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조건들만 바뀌면 자신의 삶도 견딜 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자신의 불안도 바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⁴⁰). 세계-내-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은 삶에서 요구, 수행, 고려되는 것들에 몰입해 있다. 세상의 가치, 일상성, 세인(das Man), 공공성 등이 몰입의 방향성을 가리킨다. 우리가 평균적 일상성에 몰입하는 것은 그것이 편안한 자신감, 안정감을 주기 때문인데 이것이 세간에서는 구체적 삶의 고양이나 성취로 해석된다. 그러한 삶의 방식에 집착하는 것을 두고 하이데거는 비본래적 존재 양식으로 휘말려 들어간다고 보며 퇴락이라고 부른다⁴¹).

그렇다면 비본래적 존재 양식으로서의 퇴락의 삶과 기투하는 존재 양식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 기투의 존재 양식에서는 불안이 사라지는가. 「누가」와 「낙하하다」는 존재의 불안을 재현함으로써 이의문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누가」의 「그녀」와 「낙하하다」의 「나」의 존재 양식을 되짚어보자.

「누가」의 「그녀」는 존재적 불안의 상태를 소음, 지나친 친절과 관심 등 환경 조건들, 즉 계급 문제로 은폐한다. 그리고 삶의 조건이 바뀌면 자신의 불편한 심정도 바뀔 것이라 기대하고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 이사를 한다.

그녀는 본래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아니었다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싫어져서 싫은 거다. 이제 사람이 싫다, 싫어졌다. 결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이전에 살던 집에서였다....(중간 생략).....더 많은 돈을 가져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테니까. 더 좋은 집에서 산다는 것은....이웃의 소음과 취향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동네일 테니까. 그런 동네에서는 서로 간섭하거나 간섭되는 일이 없으니.....너무 친절하게 구는 일도 없을 것이고 지속적인 소음에 시달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 세계는 좋을 것이다. (120; 123-124면)

40) 박찬국, 앞의 책, 186-187면.

41) 박찬국, 앞의 책, 237-240면.

그러나 이사를 하고 환경이 바뀌면서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들은 형체가 없는 이웃, 추적할 수 없는 소음, 근거 없는 소문 등으로 다시 등장한다. 이사 전의 심정적 괴로움과 불편함은 이사 후 무섭고 불쾌한 기본으로 전화하여 그녀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일상예의 몰입을 방해한다. 그녀는 다시 계급 문제로 전가하며 자신의 불안을 희석시킨다.

나는 돈이 없지. 이상하게 지금 돈이 없고 어쩌면 영원히 없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법이 없는 거야.....그 와중에 니들 같은 인간들한테 시달리면서.....니들 같은 이웃한테 시달리면서.....그냥 죽.....사는 거야. 니들은 다들 줄 알지? 다른 줄 알고 다를 것 같지? 백 퍼센트의 고객으로는 평생 살아보지도 못하고 어? 나는 이게 다 무서워서 불쾌한데 니들은 이게 장난이고 나만 미쳤고 내가 우습지? (134면).

그런데 ‘그녀’가 이웃에게 했던 말들을 아래층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순간 그녀는 자기 불안을 응시할 수밖에 없다. 그 불안의 정체가 재현된 「낙하하다」에서 ‘나’는 인간 존재의 피투성을 드러낸다. ‘나’는 언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채 계속 떨어지거나, 상승하거나, 원을 그리며 떠다니고 있다. 그 상태를 ‘나’는 꿈, 지옥, 혹은 죽음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얘기한다. 우주처럼 무한한 공간을 끝도 없이 떨어지는 ‘내’가 어딘가에 닿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단서는 떨어지기 전에 경험했던 “고마워요, 정도로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도의 마음”으로 표현된다. 그 기대감을 ‘나’는 이렇게 재현하고 있다.

외롭고 두려운 것도 관성이 되었다.

관성적으로 외롭고 두렵다.

외롭고 두렵고 무엇보다도 지루하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진다.

어디든 충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슬슬 어딘가 충돌해도 좋을 것이다. 부서지더라도 충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중략).....이렇게 떨어져서야 가망이 없다는 낙담뿐이다. 누가 누가 누가 없어요, 나와 나와 나와 충돌해줘.(77-78면)

떨어지고 있는 나는 “슬슬 어딘가 충돌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부서지더라도 충돌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결국 “나와 충돌해줘”라고 절박함을 드러낸다. 이것은 근원적 불안을 감추고 일상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일 수도 있고, 피투성의 존재가 기투하는 존재로 전환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이 충돌의 세계는 「누가」의 세계와 다른 것일까. 평균적(세속적) 일상성으로 다시 몰입했을 때 세계-내-존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조금도 빨라지지 않았다. 좀 전과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삼년 전과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농담이 아니다.

떨어지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78면)

「낙하하다」가 전하는 마지막 말은, 죽음 이전의 인간은 감추든 건든 불안을 피할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이며, 현존재의 존재방식을 견뎌 보겠다, 견뎌내겠다고 결단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이 결단이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삶으로서의 희망을 전하거나 긍정적 전망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불안의 재현과 실존

현대사회의 도래가 인간 삶의 새로운 조건과 전망으로 내세웠던 자유와 해방, 즉 점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믿음, 정의로운 사회, 갈등 없는 사회 등에 대한 윤리적, 정치적 담론은 오늘날 개인의 의무와 결정 영역으로 재배치되었다. 사회적으로 위험과 모순은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개인들은 자신들이 겪는 좌절과 고난을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릴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할 의무와 필요는 계속 개인 차원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⁴²).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삶의 방향과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혼란스럽다.

이러한 개인의 삶의 유약성은 「누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과 냄새에 시달리고 있는 인물들을 통해 구체화된다. 피할 수 없는 불안을 회피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불안의 대상을 만들고, 제거하며 피하는 것이다⁴²⁾. 과거에는 자신들의 불행과 수치스러운 패배, 삶의 좌절을 설명하는 데 악마, 악몽, 악령, 마녀, 괴물, 빨갱이, 이방인 같은 먼 대상들이 동원되었다⁴⁴⁾. 「누가」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등장인물 각자의 주변을 배회하는 이웃으로 설정되고 있다. 가까이에 있는 그들은 서로 간에 지속적인 공격성과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끝내 그 불안의 대상은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제거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불안, 각자의 이웃으로 은폐되었던 이 두렵고 낮은 감정을 전경화하는 것이 「낙하하다」이다. 「낙하하다」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를 상상하도록 하면서, 「누가」의 경험적 시공간에서 섬뜩한 낮은 세계로 들어가도록 돕는다. 그 세계는 “나쁜 꿈”에서 깨지 못하는 어떤 상태, 죽음에 닿아 있는 어떤 상태에서 “사라져 버리는 순간”을 연상하도록 반복된다. 궁극적으로 텍스트 자체가 “공허하고, 두렵고, 외로우며, 서글프고, 무척 쓸쓸”한 것으로 구조화되면서 일상 세계의 질서와 의미를 무화시키는 구성물이 된다. 피투된 인간의 근원적 불안이 재현된 것이다.

계급에 순응하고 정착하는 것, 즉 일상 세계에 몰입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재론적 불안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누가」의 ‘그녀’는 「낙하하다」의 ‘나’와 결합되어 인간 존재의 현실적 불안과 존재론적 불안을 마주보게 한다. 하이데거는 이 순간이 인간의 본원적 존재성을 직면하는 계기라고 설파하는데, 「누가」는 현실적 불안을 전경화하면서 존재론적 불안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낙하하다」는 존재론적 불안의 순간에서 현실의 그 순간들을 다시 견더보고자 하는 인간을 재현하면서, 각각의 두 겹의 불안은 서로의 후경화한 부분을 비추고 있다.

42) Zygmunt Bauman, 『액체 현대』, 이일수 역, 필로소픽, 2022, 83-93면.

43) 김동규, 앞의 책, 48면.

44) Zygmunt Bauman, 앞의 책, 199면.

[Abstract]

The Mimesis of Anxiety

-Two Layers of Anxiety in Hwang Jeong-eun's Novels "Who" and "Fall"

Lee, Eunju(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his study of anxiety in literature can be explained as an aesthetic response to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environment and the situation of human beings in contemporary society. There are many ways to approach anxiety, from reflections on the anxieties of enlightenment itself and the various aspects of the ontological gap to more recent discussions focusing on the problem of desire and human anxiety, but none of these have led to a discussion of our most fundamental anxiety.

Hwang Jeong-jeong's novels 'Who' and 'Fall' recreate the identity of modern people's internalised anxiety in two layers. In the 'who', foreground practical anxieties through physical and emotional events. In the 'Fall', she recreates the ontological anxiety of thrown being through a character who experiences nothingness. This shows how anxiety can be expressed literary and aesthetically in contemporary times.

This thesis has shown how metaphysical theses about the inherent anxiety of human beings have acquired literary concreteness. Hwang's novel recreates the essence of human anxiety in our time by simultaneously recreating overlapping anxieties.

Key words : anxiety, mimesis, practical anxiety, ontological anxiety, In-der-welt-sein, thrown being, Dasein

[참고문헌]

■ 기본자료

황정은, 「낙하하다」, 『파씨의 입문』, 창비, 2012.

황정은, 「누가」, 『아무도 아닌』, 문학동네, 2016.

■ 단행본

김동규, 『철학의 모비딕』, 문학동네, 2013, 47; 184-215면.

박찬국,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독』, 그린비, 2014.

박찬국,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21세기북스, 2017, 65-70면.

서영채, 『미메시스의 힘』, 문학동네, 2012, 249-265면.

Alain de Botton, 『불안』, 정영목 역, 이레, 2005, 38; 85면.

Kenneth Reinhard, 『이웃』, 정혁현 역, 도서출판b, 2010.

Paul Verhaeghe,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장혜경 역, 반비, 2015.

Ulrich Beck, 『위험사회』, 홍성태 역, 새물결, 2006, 171; 199; 215면.

Zygmunt Bauman, 『액체 현대』, 이일수 역, 필로소픽, 2022, 45-46; 83-93면.

■ 논문 및 기타 자료

강지희, 「도시의 악몽을 빠져나오는 방법」, 『문학과사회』23(3), 문학과지성사, 2010, 225; 261-265면.

김미현, 「21세기 한국소설에 나타난 감정 윤리의 동학- 긍정의 정치학을 중심으로」, 『우리말글』82, 우리말글학회, 2019.

권순홍, 「불안의 실존론적 구성과 비본래성의 가능성」, 『철학논총』78집, 새한철학회 논문집, 2014, 171-204면.

_____, 「현존재의 실존과 불안의 두 얼굴-근원적 불안」, 『현대유럽철학연구』51집, 한국하이데거학회, 2018, 217-251면.

김길웅, 「존재와 불안」, 『독일어문화권연구』27, 서울대 독일어문화권연구소, 2018, 9-34면.

_____, 「문화적 인간학의 관점에서 본 ‘감정」」, 『괴테연구』29, 한국괴테학회, 2016, 191-210면.

_____, 「불안과 근대: 낭만주의 시대의 유토피아로서 미적인 것」, 『독어독문학』58(2), 한국독어독문학회, 2017, 55-72면.

_____, 「불안, 시간 그리고 존재」, 『독일언어문학』86집,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19, 45-65면.

김지영, 「계몽의 불안과 공포의 영토화」, 『어문논집』87, 민족어문학회, 2019, 117-158면.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

- 회학』49집 1호, 한국사회학회, 2015, 179-212면.
- 김효순, 「이상 문학의 불안과 마키노 신이치 문학의 방법」, 『일본근대학연구』36, 한국 일본근대학회, 2012, 181-196면.
- 백지연, 「삶의 전환을 꿈꾸는 돌봄의 상상력」, 『창작과비평』49(2), 창비, 2021, 17-33면.
- 박일태, 「불안의 형이상학적 의미」, 『철학연구』130집, 철학연구회, 2020, 131-156면.
- 서영채, 「계몽의 불안: 루쉰과 이광수의 경우」, 『한국현대문학연구』51, 한국현대문학회, 2017, 109-142면.
- 신수정, 「2000년대 소설에 나타나는 유명 화자의 의미」, 『한국문예창작』18(2), 한국문예창작학회, 2015, 64-75면.
- 신승희, 「현대사회의 불안을 보는 한 문학적 시선」, 『한국문예비평연구』49, 한국현대 문예비평학회, 2016, 101-124면.
- 윤국희, 「황정은 소설에 나타난 ‘윤리적 폭력’ 비판」, 『한국근대학연구』20(2), 한국근 대학학회, 2019, 305면.
- 이미나, 「황정은 소설에 나타난 ‘공감’의 사유와 ‘공존’하는 연대의 가능성」, 『인문과학 연구』42,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1면.
- 이소영, 「호모 파티엔스(Homo Patiens)의 서사와 인권」, 『현대문학이론연구』85, 현대 문학이론학회, 2021, 111-137면.
- 이양숙, 「도시공간의 계도화와 불안의 정동」, 『국어국문학』195, 국어국문학회, 2021, 295-325면.
- 이은주, 「환상소설의 두 경향」, 『비평문학』73, 한국비평문학회, 2019, 228-229면.
- _____, 「먼저 온 미래, 가족해체 그 이후」, 『현대문학이론연구』86, 현대문학이론학회, 2021, 105-129면.
- 이행선, 「장강명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2015)에 나타난 한국사회 내 불안의 속성과 이민의 의미」, 『인문사회과학 연구』31권 1호,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연구 소, 2023, 263-288면.
- 전기화, 「황정은 다시」, 『창작과비평』46(3), 창비, 2018, 328-330면.
- 조홍준, 「시간은 어떻게 공간이 되는가?」, 『동서철학연구』105, 한국동서철학회논문집, 2022, 467-493면.
- 황영경, 「김숨 소설 속의 주거 공간, 불안의 극대화 설정구조 양상」, 『인문사회』21』10권 5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9, 433-445면.